



신석장로교회

담임목사 박근상

306-190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201-1
34305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601번길 26
(엑슬루아파트 후문, 등마루 공원 앞)

교회 ☎ 932-5478 목사관 ☎ 934-9817 ☎ 사무실 934-9192

홈페이지 shinseok.net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짧은 글 깊은 생각

인생은 우리가 꿈꾸던 단순한 그림처럼 반듯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7장 13-14절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형통은 우리의 교만을 경계하며 감사와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반면, 곤고한 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형통과 곤고라는 두 레일 위에 올려놓으시고 병행하게 하십니다. 형통과 곤고는 마치 철로처럼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갑니다. 형통할 때는 기쁨과 감사로 그 순간을 누리며,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반면, 고난의 시간은 우리를 깨우고,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삶의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게 하셨지만, 우리의 모든 길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형통과 곤고의 순간이 언제 교차할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하고 지혜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푸른 초장을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우리의 종착지는 여호와와 영원한 집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깊이 생각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복된 인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심을 믿으며, 그분의 섭리를 의지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중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주 일 낮 예 배			
1부:오전8시 2부:오전11시		인도: 박근상 목사	
기 도		다	같
경배찬송	1장	다	같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1)	다	같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	같
찬 송	80장	다	같
기 도		1부	윤태영전도사
		2부	황학성집사
성경봉독	로마서8:37-39	인	도
찬 양	Have youself a merry christmas	성	가
설 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박근상목사	
기 도		인	도
찬 송	260장	다	같
헌금봉헌	헌금함예	다	같
헌금기도		인	도
광 고		인	도
찬 송	기쁨으로 찬양	다	같
축복기도		박근상목사	

■ 금주의 말씀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8:39

성탄축하의 밤 오후 7시 30분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109장)
말씀/ 요3:16 독생자를 주신 사랑
특별순서
찬송/ 그 어린 주 예수 (108장)
광고
축도

성탄절 예배 오전 11시

목도
찬양 64장
신앙고백- 사도신경
찬송 122장
기도 김장옥 집사
성경 마태복음1:18-25
성가대찬양
설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찬송 115장
헌금기도
축도

■ 교회소식 ■

- 1. 오늘은 온세대연합예배로 드리며 소그룹의 날입니다.
2부 예배후에 점심식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 2. 24일(수) 성탄축하의 밤 행사가 있습니다.
- 3. 25일(목) 오전11시 성탄절예배로 모입니다.
- 4.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여호수아를 매일 묵상합니다.
- 5. 주보에 자료가 있습니다.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14)
- 7. 2026년 꽃꽂이 신청자 받습니다. (기념일, 감사한 일)

31일(수) 오후11시 송구영신예배

■■ 말은 청지기 ■■

	안 내	기 도	꽃꽂이
이번주	1층 김종기 이길연 2층 성미옥 김순미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윤태영 황학성	교회/ 성탄절
다음주	1층 김장옥 이흥용 2층 성미옥 김순미 주차안내 이상열 황학성	김실근 이길연	황학성 손영문/한해감사

청소담당:2,3층 이번주(12,26) 2구역(이미선)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다음주(01,02) 3구역(노인숙) *1,4,5층은 담당자들이 수고하십니다.

유아부(4층 유아실) 주일 오전11시 사회자 -윤태영 전도사 설교자 -윤태영 전도사 본 문 -사 45장 22절 제 목 -세상의 기쁨	활동 1.12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2.성탄절 발표회 연습합니다. 3.25일은 성탄절예배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유초등부(1층 교육관) 주일 오전9시 [예배] 온 세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11시, 본당)	1.12월 암송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2.온세대연합예배 후 성탄절 리허설 연습합니다. 3.25일은 성탄절 예배로 부모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4.다음주는 달란트시장 합니다.
중고등부(5층 예배실) 주일 오전9시 [예배] 온 세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11시, 본당)	1.예배 후 성탄연습 리허설합니다.(15시) 2.12/24(수) 오후 7시 성탄축하의 밤 행사 12/25(목) 오전 11시 2층 본당 성탄예배가 있습니다. 3.12/28(주) 대표기도는 김채정자매입니다.
청년부(5층 예배실) 주일 오후2시 [예배] 온 세대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11시, 본당)	1.12월 예배인도 백가은자매, ppt 조수윤희제, 암송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2.12/24(수) 오후 7시에 성탄축하행사, 12/25(목) 오전 11시에 2층 본당에서 성탄예배가 있습니다. 3.12/28(주) 대표기도는 백성준형제입니다. 예배 후 졸업식과 생일축하가 있습니다.

공동 예배		
주일낮예배	1부 오전 8시 2부 오전11시	유년주일학교 주일 1부 오전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 9:00
새벽기도회	매일오전5:00	청년부 주일 오후2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실망스러울까

기독교인 친구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이미지 때문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가보면 앞에 나와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밝은 얼굴로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긍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기대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면 용납이 잘 안됩니다.

사람이 위선적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될 때에 솔직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자신을 그럴듯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펍 괜찮은 신앙인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직분에 맞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연약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이 부족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하면서도 바른 행동을 하려고 애쓰는데, 속에서는 여전히 분노나 질투나 욕심 같은 감정들이 끓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만 모이는 동아리가 아닙니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곳에 더 가깝습니다.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이 상하고 삶이 힘든 사람들이 위로와 회복을 찾아서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오면 아프다고 말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야 치유가 임합니다.

교회는 연기자들의 무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실력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기도를 잘해야 신령한 신자, 봉사를 많이 해야 성실한 신자, 말을 조심해야 흠이 없는 신자... 교회가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보다는 사람들의 평판에 민감한 곳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면 같은 그럴듯한데 속은 형편없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밖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때 이해할 수 없는 집단으로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라는 평판을 위하여 존재하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집단에서나 누군가가 교회에 성실하게 나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기대치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서 실망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화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질투심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자신의 약함 모습이 드러내기 싫으니까 결국은 결만 멀쩡한 부실한 인간으로 낙인이 찍히기도 합니다.

어떤 집단이든지 정상적인 사고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사람은 회사에도, 학교에도, 동네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띄는 이유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고상한 가치들에 비하여 현실속에서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단체보다 교회는 좋은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 용서, 겸손, 섬김... 그런데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에게서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에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독교가 추구하는 것들과 현실이 다를 때에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판단하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무엇을 하러 왔는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너무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기대나 평판 때문에 기독교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치료 받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치료중인 사람들이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말도 궁색합니다. 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도 다 이해해야 한다는 것도 궁색합니다. 교회를 나오려면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나오라는 말도 궁색합니다. 연약하다든지 치료중이라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의 위선을 무조건 눈감아 달라는 것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위선이 좋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선이란 단순히 자신의 이미지 관리 차원을 넘어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이유는 위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나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는데 결만 그럴듯한 위선자를 만난다면 예수님에 대한 흥미도 교회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진실한 사람은 연약한 그릇과 같아 조그만 충격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실한 사람이 위선이 굳어진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과 충돌이 일어나면 센 사람이 유리합니다. 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말 잘하고, 자리를 잡고 있고 좋은 이미지로 알려진 사람들이 더 대접받습니다. 조용한 사람들, 상처 있는 사람들, 질문이 많은 사람

들은 위축되고 어딘가 숨게 되고 그 교회를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교회안에 위선적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관심 있는 분들에게 권합니다.
기독교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꼭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통하여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의 겉모습이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건강하고, 어떤 교회는 아프고, 어떤 교회는 위험하기도 합니다. 매우 좋은 사람과 매우 위험한 사람이 한 울타리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대 이하의 사람을 만나면 아예 망하게 되고 기대 이상의 사람을 만나면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므로 크게 실망하기도 합니다.

만일 기독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완벽한 교회를 찾기보다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나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함을 요구하면 그런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영영 기독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늘 선한 방향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은 공동체입니다.

이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교회 안에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많아 보일지라도 기독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복잡하고, 변화가 생각보다 어렵고, 공동체가 생각보다 쉽게 병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기독교는 길을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종교가 아닙니다. 속에서부터 사람을 새롭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일지라도 예수님도 그럴 것이라고 단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위선자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셨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실망하더라도, 관심이 있다면 초점을 사람에게서 예수님에게로 돌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옮겨보는 건 어떨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럴까 하는 생각보다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그런 세상에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려고 했을까? 왜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식 소그룹 누가복음 2:8~20(12월 24일 본문)

온 백성을 위한 기쁨의 소식

하나님 찬양하기 *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새 272)

Focus :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습니다.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 읽기 누가복음 2:8~20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유대에서 하층민에 속하는 목자들은 가난하고 천대받고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성 밖 들판에서 밤 낮 양 떼를 지키며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규례 등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어려웠고, 성전 예배나 정결 예식에도 자주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목자들을 '죄인' 혹은 '경건하지 않은 사탄'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러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집니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의 본을 보이기 위함이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보여 줍니다.

말씀 나누기

1. 관찰과 묵상

두려움에 휩싸인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인가요?(10~11절) 그것을 입증하는 표적은 무엇인가요(12절)

적용과 나눔

살아오면서 내게 기쁨을 준 소식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 더 기쁜 소식일지 나누어 보세요.

2. 관찰과 묵상

천사들이 하늘로 떠난 뒤 목자들은 어떻게 행동했으며(16~17절), 목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18~19절)

적용과 나눔

목자들의 행동이나 마리아의 반응을 보며, 나는 무엇을 결단할지 또는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함께 실천할지 나누어 보세요.

말씀 다지기

세상에는 좋은 소식 같지만 결국 실망을 안기는 거짓 메시지가 넘쳐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에게 참기쁨이자 가장 절실한 소식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낮은 자리에 있는 자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의 선언이며, 조인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유효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며, 세상에서 방황하며 절망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하나님, 죄로 인해 망가지고 소망 없는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기

1. 죄인인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겸손히 나누며,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2. 태국인의 약 15%가 성소수자라고 보고됩니다.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릇된 가치관에서 벗어나길 기도합니다(179쪽 '땅 끝에서 온 편지' 참조)

* 찬양, 헌금, 헌금 기도 및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메모

본문:

제목:

이름:

이번 주간에 꼭 실천해야 것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신석장로교회는

1984년 5월 17일에 설립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대신)교단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박근상 담임목사는 대덕구기독교연합회 회장, 대덕경찰서경목실장 대전기독교연합회회장, 대전성시화운동본부 공동회장. 부총회장을 역임하고 대전극동방송. 대전기독교방송을 통하여 1만회 이상 매일강해설교를 했고 유튜브[박근상매일성경]을 2000여회 방송중입니다.

■유튜브 [박근상매일성경] ■홈피 shinseok.net

주님의 시간에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박근상

시무장로: 김일남 박현철 오종수 유상수 이상선 이상열

협동장로: 김종기 박성훈

교육목사: 최민관 전도사: 윤태영

사무간사: 손영문 건물관리 총무: 오종수

성가대지휘: 최의석 반주: 피아노- 김래아 유혜환 오르간: 윤연정

찬양인도: 최의석

방송.영상: 윤홍규 한현구 중보기도사역팀: 천영임

홈피 관리: 최민관 손영문

이슬비전도대 총무: 노인숙 협동총무 장민채

강단꽃꽂이: 김향례 박종례 손영문 유은희 최금숙 황순화

차량봉사: 남기성 이상열 유상수 주차관리: 김종기 오종수 이상열 황학성

담임목사 방송사역

10 분 설 교	대전극동방송(FEBC)	매 주(월) 오전10시 50분(내가 매일 기쁘게)
주 일 설 교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 주일 오후5시 (신석의 시간)
오늘의 은혜로	대전기독교방송 CBS	매 주(금) 오후1시 5분-15분
TV방송칼럼	대전CTS	매 주(토) 오전 10시 50분(로템나무)